여수가 들썩인다…거북선축제 4일 개막

7일까지 종포해양공원·이순신광장 일대서 열려

통제영길놀이·가요제·문화공연 등 볼거리 풍성

'남해안 대표 명품 해양관광도시' 여수시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지역 대표 축제인 '여수거북선축제'를 연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51회를 맞는 여수거북선축제는 '정유년의 혼, 여수밤바다에 물들다'를 종포해양공원과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주제로 호국, 민속, 해양의 3색 테마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여수시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전통·현대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축제를 선사하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을 이순신광장과 종포 해양공원 일원에서 진행한다.

올해 거북선 축제는 다양한 변화와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관람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대표 프로그램 통제영길놀이 출발구간을 여수시민회관 앞에서 서교동육교로 변경해 구간을 2.8km에서 2.1km로 단축했다. 통제영길놀이는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승전사를 재현하는 거리퍼레이드로, 여수거북선축제의 대표적인 행사로 손꼽힌다.

거북선, 판옥선, 등풍용왕 등 50여개 주제의 작품을 총 5000여명의 참가자가 연출하며 거북선축제 첫날인 4일 오후 4시부터 서교동 로터리에서 종포해양공원 구간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진남관과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펼쳐졌던 해상수군 출정식을 해상으로 확대해 24척의 판옥선으로 1차 전투에 출전했던 역사적 장면이 생생하게 재현된다.

시는 이날 고유제를 시작으로 소동줄놀이경연대회, 매구(농악) 경연대회, 전라좌수영 둑제, 통제영길놀이 등을 통해 임진왜란 전란사과 이순신장군의 활약상이 역동성 있게 그려낸다는 계획이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8시40분부터 종포해양공원에서 열리며 다양한 축하공연과 함께 하늘을 수놓는 형형색색의 불꽃이 4일 동안의 축제 시작을 알린다.

5일에는 소년 이순신 선발대회와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매직판타지쇼 등 현대문화행사가 이순신광장에서 열린다.

또 거문도뱃노래와 진도아리랑과 비슷한 곡조로 여수 지역민의 애환이 담긴 사난이타령 경연대, 현천소동패 놀이와 각종 전통문화행사가 종포해양공원에서 펼쳐진다.

셋째 날인 6일은 이순신광장에서 청소년밴드 페스티벌과 5관 5포지역 예술공연이 열린다. 같은 날 종포해양공원에서는 수륙고혼천도대제와 춘향무, 용줄다리기대회 예선, 풍어굿 등이 예정돼 있다.

축제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시민·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이순신골든벨 퀴즈와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거북선가요제, 예술인 단체 문화공연 등 참여형 각종 경연대회가 이어지면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올해 여수거북선 축제는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 훈련함 관람과 노젓고 노세, 좌수영 병영체험, 수군복 체험, 소동줄놀이체험, 신호연(줄연) 체험, 전라좌수영 모형등 체험, 궁도체험 등 관광객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이 살아 숨 쉬는 여수 대표 축제인 만큼 이번 여수거북선 축제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관광객이 모두 하나되는 대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LG화학 사택 부녀회 봉사단원들이 지역 여성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위생용품을 포장하고 있다.

LG화학, 저소득 여성 청소년 500명에 위생용품

'꿈을 품다 희망박스' 전달

여수국가산단 대표 기업인 LG화학 여수공장이 지역 청소년을 위한 사랑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1일 LG화학 여수공장에 따르면 최근 LG화학 안산사택에서 여수지역 저소득가정 여성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꿈을 품다 희망박스' 전달식을 했다.

이날 행사는 LG화학 사택 부녀회 봉사단과 여수시,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3000여 만원 상당의 LG생활건강 여성 위생용품은 개별 택배 포장돼 500명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은 LG화학 여수공장이 어려운 형편상 여성 위생용품 구입이 쉽지 않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학자금 2300만원 후원증서를 통해 19명의 결연 청소년에게 고교 졸업 때까지 매월 10만원씩 후원금과 명절 위문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철 LG화학 여수공장 HR담당은 "정부에서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행사를 후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 학생들이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 올해 첫 벼룩시장

거북선공원서 13일 개장

마술공연 등 행사도 다채

여수시가 시민 누구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여수벼룩시장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거북선공원에서 올해 첫 벼룩시장을 열고 이후 6월, 9월, 10월, 11월 첫 번째 토요일에 벼룩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벼룩시장 판매자는 별도의 참가비 없이 의류, 도서, 잡화,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을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벼룩시장의 취지에 반하거나 약품과 같은 건전성·안전성 우려가 있는 물품은 제한된다.

특히, 올해 벼룩시장에서는 어린이와 참여시민이 즐길 수 있는 마술공연과 전통공예품 체험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5월 벼룩시장'에서 판매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1일까지 시 홈페이지(http : // www.yeosu.go.kr)나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벼룩시장은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윈윈하는 알뜰장터"라면서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는 벼룩시장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친구야, 섬으로 가자…낭만 섬여행 인기

여수시가 마련한 '친구야, 섬으로 가자!'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하화도 체험활동을 마치고 백야도 방문을 위해 여객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여수시 제공〉

여행전문가·작가·청년 등 대상

여수시 9월까지 생태체험 운영

UCC영상·SNS 등 홍보키로

여수시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유의 생태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친구야, 섬으로 가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기다.

여수시는 "지난달부터 오는 9월까지 전국의 여행작가, 여행전문가, 청년층 등 120여명에게 1박2일 일정의 섬 생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참여자들은 체험활동 후 UCC 영상을 제작하고 SNS 등을 통해 소감을 전하며 여수의 섬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첫 번째 행선지는 백야도와 하화도로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체험활동이 진행됐다.

수도권 거주자 40명은 첫날 하화도의 꽃섬길을 산책하며 최근 설치된 꽃섬다리와 함께 뛰어난 해안경관을 감상했다. 둘째 날은 여수반도 끝자락에 자리 잡은 백야도를 찾아 섬 주민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갓김치·손두부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달 방문 예정인 손죽도에서는 이대원장군 유적 답사, 산다이놀이 체험 등을 준비중이며, 6월에는 거문도에서 영국군묘지 탐방, 지인망끌기 체험을, 9월에는 연도에서 소리도 등대길 탐방, 방풍채취 체험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섬 생태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여수의 아름다운 섬이 주민과 여행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활력 넘치는 섬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범죄피해자 가정' 돕기에 나서고 있는 금호피앤비화학 여수공장 임직원들이 최근 여수 갯가길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금호피앤비화학, 범죄피해 가정 청소년에 장학금

여수갯가길 환경정화 봉사도

여수국가산단 내 금호피앤비화학 여수공장이 지역 범죄피해자 가정 아이들을 위한 사랑나눔을 실천한다.

1일 금호피앤비 여수공장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범죄 피해 가정 청소년들(5명)과 후원결연을 맺고 매월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금호피앤비는 후원 청소년들을 위해 매월 100만원씩(임직원 50만원, 회사 50만원) 연간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 지원금액과 인원도 늘려갈 계획이다.

정영호 금호피앤비 여수공장장은 "지역내 범죄 피해 가정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나눔을 통해 지역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피앤비 여수공장 봉사단은 최근 여수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명품해안 트레킹 코스로 떠오른 '여수갯가길'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기 봉사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